법원사람들

09

2026 September Vol. 497







사법 기본권 수호
희망찬 도약의 시작

대한민국법원

QR코드를 통해
법원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Cover story
이번 호에서는 개원 5년 차에 접어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찾아갔습니다. 바른 정의와 따뜻한 진심으로 100만 경기 동북부 지역민의 든든한 사법 울타리로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을 알아봅니다. 더불어 각종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양형자료분석관'의 하루도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사람들

2026 September Vol. 497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편집인
공보관 이도행
편집총괄인
홍보기획관 이우탁
편집기획팀
곽인욱, 유수연, 백지연, 신유림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기획·디자인·편집
디앤씨컴퍼니



법원의 울림

06
빛나는 얼굴
바르고 따뜻한 열린 사법의 보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2
현장의 시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4
근처 한 바퀴
마음으로 즐기는 상심낙사(賞心樂事)의 길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서

16
맛있는 선택
바람 끝에 가을이 묻어나는 곳
남양주로 떠나는 미식 드라이브

18
성장의 발자취
공은 경쾌하게 마음은 가볍게
2.7g이 선물하는 오늘의 여유



사람들의 하모니

22
사유의 순간
두 시간 반의
자유

26
시간의 기억
나의 러닝 도전기

30
마음의 온기
우리 집 오븐이 부풀려 준
행복의 황금비율

34
이달의 법원사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국제사법교류의 역사와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40
법원의 하루
고단한 일상에 햇살 한 스푼
양형위원회의 비타민 황자림의 하루



일상의 여운

42
법원 스토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백년사기념관을 가다'

48
이달의 필사
깊어 가는 가을밤, 달빛에 띄우는 그리움

50
Movie Pick
어느 날, 타인의 길 위에서 나를 읽다
영화 〈쇼타씨의 마지막 출장〉

52
Smart Court
맨땅에 헤딩은 그만!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아이디어 회의

54
독자 참여
500호 발간 기념 독자 참여 공모전

대법원 채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9월,
곳곳에 불어오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

높아진 하늘과 선선해진 바람이 반가운 가을의 시작을 알려옵니다.
산자락과 강물 사이로 스쳐 오는 시원한 공기는
바빴던 일상에 기분 좋은 청량함과 환기를 선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삶도 늘 변하고, 그 변화의 길목마다 누군가는
따뜻한 손길과 공정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연에도 한결같이 귀를 기울이고,
든든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답답했던 마음에 명쾌함을 더하는 곳.
100만 지역민의 삶을 곁에서 지켜온 남양주지원은
오늘도 치우침 없는 공정함으로 진실을 가려내고,
따뜻한 소통과 공감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산은 조금씩 빛깔을 바꾸고,
강물은 여름의 무게를 덜어내며 더욱 맑게 흘러갑니다.
그 맑은 물줄기처럼 남양주지원의 공정하고 따뜻한 판단도
모두에게 막힘없이 고르게 다다를 것입니다.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산뜻한 발걸음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기분 좋은 위로이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September



바르고 따뜻한 열린 사법의 보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왼쪽부터) 윤애향 행정관, 김선호 총무과장, 김다솔 주무관, 허형준 주무관, 정지원 판사, 오원찬 지원장, 남이령 주무관, 박재욱 판사, 김동진 사무국장

산과 강이 어우러진 경기 동북부의 중심이자 다산신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하 남양주지원)이 정겨운 온기로 지역민을 맞이한다. 높은 담장을 허물어 시민의 발걸음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치우침 없는 엄정한 재판과 따뜻한 소통으로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곳. 100만 경기 동북부 지역민의 사법 기본권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 남양주지원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을 본 사법 보금자리
남양주지원의 탄생

남양주지원의 출발선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신속한 사법 서비스에 대한 간절함이 놓여 있다. 1995년 1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남양주지원은, 관할 지역의 비약적인 성장과 맞물려 독립된 지원 승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잇따르면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3개 시·군의 합산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판 및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남양주지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민사소액사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까지 직접 이동해야만 했다. 특히 경기 동북부의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왕복 2~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법 접근성의 한계가 매우 컸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3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신설이 확정되었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매입비 부담과 부지 선정 지연으로 사업이 연기되는 난관을 겪었다.

이후 2017년 말 법률이 재개정되어 2019년 10월 다산동 부지에서 첫 삽을 떴고, 2022년 1월 27일 청사 준공 후 3월 1일 공식 개원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법원과 남양주등기소 및 구리등기소를 폐쇄·통합하고, 가평군법원과 가평등기소를 남양주지원 소속으로 재편하면서 마침내 경기 동북부의 독자적인 사법 거점이 완성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청사

소통과 배려를 담아낸 공간
담장 없는 청사와 무장애 설계

오랜 기다림 끝에 문을 연 남양주지원 청사는 새롭게 지어진 스마트 청사답게 쾌적한 환경에 대한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먼저 청사에 들어서면 관공서 특유의 위압감 대신 따뜻한 개방감이 방문객을 반긴다. 담장 없는 청사 주변으로 조성된 자연스러운 산책로와 녹지 공간은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시민들이 언제든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처 같은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청사 내부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설계다. 문턱을 완전히 없애 이동 편의를 극대화했으며, 종합민원실 민원대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전용 공간을 설치하는 등 청사 곳곳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깊은 배려를 담았다.



(왼쪽부터) 김선호 총무과장, 김동진 사무국장, 오원찬 지원장, 김다솔 주무관

이 밖에도 방문객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주출입구와 직원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내부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안과 동선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쾌적한 민원 대기 공간과 첨단 IT 기기를 활용한 안내 시스템은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선사한다.

다산신도시 중심이라는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과 세심한 무장애 시설이 더해진 남양주지원 청사는 시민 중심 스마트 청사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

사법 접근성의 획기적 전환
100만 주민의 사법기본권 실현

개원 당시 단 10명의 판사로 출발했던 남양주지원은 다산, 별내, 왕숙 등 신도시 개발로 폭증하는 사법 수요에 발맞추어 규모를 대폭 확대해 왔다. 2026년 현재 남양주지원은 법관 24명과 법원공무원 166명 등 총 190여 명의 법원 가족이 상주하며 민사·형사·가사 재판 및 신청, 집행, 공탁 및 등기 등 제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특히 민사에만 10여 개의 재판부가 활발히 가동 중이며, 가사와 형사 역시 다수의 재판부가 신설되어 경기 동북부의 사법 서비스를 책임지는 단단한 체계가 구축되었다.

개원과 더불어 시행된 등기소의 통합 운영 역시 완벽히 안정을 찾았다. 기존 남양주등기소와 구리등기소를 청사 내 등기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할 변경 및 민원인들의 통합 청사 방문으로 인해 일부 혼선이 일기도 했으나, 등기 민원 콜센터와 선진화된 안내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핵심 등기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아울러 과거 의정부지방법원 인근에 집중되어 있던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들이 남양주지원 청사 주변으로 대거 확장·이전하면서 완벽한 자족 기능을 갖춘 대규모 거점 법조타운이 형성되었다.

이렇듯 사법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지역민들은 "가깝고 편리해진 우리 동네 법원"이라는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양주지원은 이러한 평가에 부응하며 주민들의 사법 기본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버팀목이 되어가는 중이다.

활기찬 조직 문화에서 피어나는 주민을 향한 열린 사법

내부 소통과 나눔의 문화도 다채롭게 꽃피고 있다. 직원 간 행사 일정, 업무 자료 공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사내 조직 커뮤니티인 '다산초당'을 개설해 수평적인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형사 연구회 및 법원 직원 실무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최신 법리와 재판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써 판결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이에 더해 등산, 탁구, 스크린 골프, 문화 관람 등 다양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는 지역 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과 소통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최근 남양주지원은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염원을 모아 봉사동호회인 '다산누리봉사단'을 정식 창설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살피고 법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온기 있는 법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문도 넓게 열어두고 있다.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및 일반 단체(1회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법원 업무 소개와 홍보 영상 시청은 물론, 실제 민·형사 재판 방청까지 포함되어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한다. 특히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지원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등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사법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남양주지원 법원 견학 프로그램





(위/왼쪽부터) 박재욱 판사, 정지원 판사, 윤애향 행정관, 허형준 주무관
(아래/왼쪽부터) 허형준 주무관, 윤애향 행정관, 남이령 주무관

남양주지원의 목표는 분명하다. 신설 법원에서 기성 법원으로의 도약이다. 급격히 확장된 사법 역량을 고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재판부 재편과 겸임사무 조정, 취약 부분의 인력 충원에 힘을 쏟고 있다. 공정한 정의와 따뜻한 공감으로 채워진 남양주지원이 경기 동북부 지역 사회의 든든한 사법 보루로서 더욱 높이 성장해 나가길 응원한다.

남양주지원 가족들과 함께 경기 동북부에 법의 정신을 빛처럼 비추는 등대 같은 법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원장 **오원찬**



남양주지원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젊고 신선한 분위기를 저희만의 매력으로 꼽고 싶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새 건물에, 전입 직원과 신규 직원이 어우러져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해마다 재판부가 증설되어 식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동호회도 생깁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 2035년경에는 관할 인구가 1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움이 주는 활력이 남양주지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지원만의 특별한 조직 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선배가 솔선수범하는 문화가 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격지 근무지인 가평군법원에는 참여관급 이상 직원이 근무합니다. 어느 사무과에서는 선임 계장이 일찍 와서 다른 직원들을 위한 커피를 미리 내려놓기에 후배 주무관은 커피향을 맡으며 출근합니다. 저 역시 솔선수범하는 문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중한 재판부의 사건도 맡아 처리하고 구성원들과 계속 소통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무관들과 함께 시작한 맛집 평가 정보 공유도 호응이 좋아,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원장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사법 가치는 무엇인가요?

"Fresh justice is the sweetest; and to the end that there be no delay of justice..."
(신선한 판결[신속한 재판]야말로 가장 달콤하다. 그리하여 정의에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하며….)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대법관이 1617년 취임 연설에서 발언한 '신선한 판결이 향기롭다'라는 법언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시 판결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남양주지원에는 신규 직원이 많고 겸임사무도 많습니다만, 신설 법원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후배의 패기와 선배의 지혜를 합쳐 극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덧붙여 매일 저녁 사무실 불을 등대처럼 켜고 일하는 우리 법원 가족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남양주지원 가족들과 함께 경기 동북부에 법의 정신을 빛처럼 비추는 등대 같은 법원이 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잔잔하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
시간마저 숨을 고르는 곳

수많은 사연과 법적 공방, 그리고 치열한 삶의 무게가 교차하는 법원.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은 때때로 냉혹하게 느껴지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은 가끔 마음의 여유마저 잃게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남양주가 품은 눈부신 북한강의 풍경이 지친 마음에 가만히 숨겨 둔 위로를 건넵니다.
수만 년 동안 한결같은 속도로 흘러온 북한강, 그 묵묵한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언(無言)의 안식과 함께 다시 일상을 살아낼 잔잔한 용기가 차오릅니다. 치열한 다툼과 고민이 머물다 가는 도시의 풍경 뒤로, 북한강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하면서도 유연하게 푸른 물결을 이어갑니다.



북카페에서
마주한 온기

청사 2층에 자리한 따뜻한 휴식처, 남양주지원의 북카페가 바삐 걸어가는 법원 가족들을 잠시 불러 세웁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따뜻한 원목 테이블 위에 다소곳이 놓인 책 한 권. 그 무심한 듯 다정한 풍경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긴장으로 팽팽했던 마음의 끈도 어느새 스르륵 풀려 나갑니다.
유리창을 통과해 들어오는 햇살은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고, 손때 묻은 단정한 책들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도 그 고요한 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저마다의 이야기 한 페이지를 조용히 넘겨봅니다.



마음으로 즐기는 상심낙사(賞心樂事)의 길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서

글. 편집실

북한강과 남한강의 푸른 물줄기가 품어 안은 경기 옛길 평해3길, 일명 '정약용길'로 들어서면 한강의 깊은 정취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이 펼쳐진다. 검소했던 생가와 역사적 자취가 살아 숨 쉬는 유적지부터 팔당호의 물결이 사부작거리는 생태공원까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의 숨결을 느끼며 상심낙사(賞心樂事)의 길을 따라 거닐어 보자.



다산의 얼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 산책

마재마을 코스(2시간): 정약용유적지 ›› 마재마을 ›› 능내삼거리(연꽃마을) ›› 다산생태공원 ›› 실학박물관

'정약용길' 코스(5시간): 팔당역 ›› 팔당댐 ›› 능내삼거리(연꽃마을) ›› 정약용유적지 ›› 다산생태공원 ›› 운길산역

실학의 숨결이 오롯이 새겨진 고향 마재마을과 정약용유적지

새들도 편히 쉬어간다는 조안면 능내리의 마재마을은 18세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고 자라며 여생을 마친 고향이다. 선생의 5대조부터 뿌리를 내린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정약용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고요한 흙길을 걸어 들어가면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유실되었다가 복원된 생가 여유당(與猶堂)이 반긴다. 집 앞으로 천이 흐르고 뒤로 낮은 언덕이 있어 수각(水閣)이라고도 불렸던 이곳은 선생의 검소하고 꼿꼿한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유당 오른쪽 뒤편 계단을 오르면 회갑을 맞아 스스로 지은 '자찬묘지명'의 역사와 부인 풍산 홍씨와 합장된 세월이 서린 정약용선생묘(경기도기념물)가 자리한다.

유적지 내 다산기념관에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저서 사본과 친필 서찰, 수원 화성 건축 현장을 재현한 디오라마와 거중기, 녹로를 관람할 수 있으며, 문화관에서는 '신아지구방' 등 정약용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 7점을 마주할 수 있다. 유적지 바로 옆에는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이 있어 실학 관련 유물과 다채로운 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 후기 개혁 정신을 더욱 깊이 있게 접해볼 수 있다.

팔당호와 교감하는 수변 길, 자연과 어우러진 다산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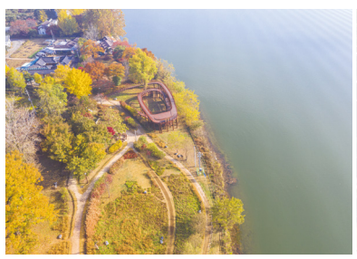
실학의 깊은 여운을 가슴에 품고 정약용길을 따라 나가면 다산생태공원이 보물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훼손되었던 팔당호 수변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되살린 이곳은 생태습지, 정화습지, 조류생태습지와 수생식물원이 다정하게 들어앉은 물 환경 생태공간이다.



다양한 초화가 조성된 야생화 꽃밭과 수변 산책로를 걸으면 한강을 사랑했던 정약용 선생의 마음과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쉼터에 앉아 강바람을 맞거나 팔당호와 공원을 한눈에 담는 전망대에 오르면 선선해진 공기가 묵직한 일상의 무게를 덜어낸다. 여름의 끝자락에 피어난 연꽃이 수면을 조용히 수놓고, 9월이 깊어질수록 억새가 바람에 은빛으로 일렁이며 계절의 바뀜을 알린다.

선선한 가을빛이 깊어지는 10월에는 고즈넉한 정약용유적지와 아름다운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다산정약용문화제가 열린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념인물인 선생의 실사구시와 인문정신을 계승하고자 1986년부터 이어진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로, 헌화헌다례와 문예대회, 취타대 행렬과 줄타기, 여유당 야행 등 다채로운 역사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반긴다.

정약용유적지의 인문학적 깊이와 다산생태공원의 맑고 푸른 자연이 하나로 이어지는 정약용길. 선선한 가을 햇살 아래, 2백 년 전 한 사람의 걸음이 닿았던 강변을 나란히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 넓어져 있을 것이다.







바람 끝에 가을이 묻어나는 곳
남양주로 떠나는 미식 드라이브

산과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남양주는 가을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자연이 준 선물 같은 풍경을 따라 달리다 보면, 여행의 풍성함을 더해줄 맛있는 한 끼가 그리워지기 마련. 담백하고 깊은 맛의 이북식 만두부터 탁 트인 절경에서 즐기는 고품격 보양식까지, 남양주에서 만난 특별한 맛집을 소개한다.



사진 출처: 어랑손만두국

식당 추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김인화 주무관, 이영웅 주무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생각나는 깊고 담백한 이북식 만둣국의 정석

남양주 깊은 자락에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 온 '어랑손만두국'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릇 하나에 담긴 정성과 온기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곳이다. 투박하지만 꽉 찬 속과 진한 육수가 어우러져 속 편하고 든든한 한 끼를 보장하는데, 현대적인 맛에 길든 분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으나 정통 손만두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어랑손만두국은 매일 직접 만두를 빚는다. 얇으면서도 쫄깃한 만두피 안에 김치와 두부,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잡내 없이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이북식 스타일이다. 강한 양념으로 자극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질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만두알 자체가 큼직하고 묵직해 몇 개만 먹어도 포만감이 상당하다. 사골로 만든 육수는 깊고 진하며, 뚝배기에 담겨 나와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

전통과 세월이 느껴지는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깊은 내공이 담긴 이북식 만두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어랑손만두국에 꼭 들러보길 바란다.

알려드립니다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84-25
- 손만두국 13,000원, 어랑뚝배기 13,000원
  손만두전골 37,000원
- 매일 8:00~21:00
- 031-592-2959
- 김인화 주무관

맛과 뷰가 공존하는 최고의 선택

'버드나무집'은 남양주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인 미음나루의 끝 쪽, 한강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식사 장소 창밖으로 탁 트인 한강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니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벌써 기분이 좋다.

대표 메뉴인 장어구이는 국내산 1등급 장어와 특허받은 소스로 맛을 더한다. 잡내 없이 고소하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식감이 훌륭하며, 주방에서 다 구워져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냄새나 연기 걱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매우 간편하다. 여기에 연잎밥을 추가해 먹으면 은은한 연잎 향과 함께 든든한 보양식이 완성된다.

한강 뷰와 보양식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가격대가 다소 있는 편이지만 분위기와 음식 퀄리티를 생각하면 특별한 날 기분 내기 아깝지 않은 수준이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깔끔하고 정갈한 보양식을 즐기고 싶거나 품격 있는 모임 장소를 찾는다면 버드나무집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사진 출처: 버드나무집 남양주본점

알려드립니다

- 경기 남양주시 강변북로632번길 60
- 장어구이 43,000원,
  정통 닭볶음탕(한 마리) 68,000원,
  토종 닭백숙(한 마리) 70,000원
- 매일 10:30~23:00
- 0507-1438-1586
- 이영웅 주무관

공은 경쾌하게 마음은 가볍게
2.7g이 선물하는 오늘의 여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탁구동호회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둔탁한 마루판 울림과 함께 경쾌하게 튀어 오르는 하얀 탁구공 소리가 신나는 리듬을 만들며 경세홀을 가득 채운다. 남양주지원 개원과 함께 돛을 올린 탁구동호회가 그리는 즐거운 풍경이다. 지원장부터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약 35명의 회원이 골고루 참여해 남양주지원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자리 잡은 탁구동호회는, 오늘도 정적인 법원의 하루에 활기찬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스매시 한 방에 날아가는 오늘의 스트레스

단 2.7g에 불과한 작고 가벼운 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속도와 스핀, 방향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날씨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벼운 라켓과 운동복, 탁구화만 갖추면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스포츠는, 하루 종일 산적한 서류와 과제 속에서 쉼 없이 가동되던 법원 사람들의 뇌에 비로소 달콤한 휴식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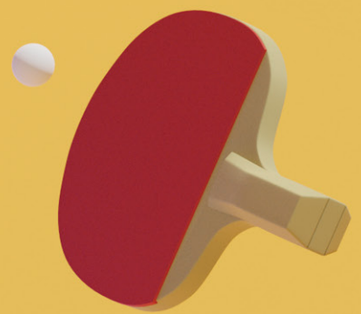
탁구를 시작한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남양주지원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탁구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강하게 내리꽂는 스매시를 온 힘을 다해 받아치거나 날카로운 드라이브로 득점을 올리는 순간,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던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해소되며 청량한 카타르시스가 솟구친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가대표 출신 전문 코치에게 받는 체계적인 레슨 시간 역시 회원들에게는 오롯이 자신에게 몰입하는 시간이다. 박미선 등기관은 일주일에 두 번, 15분 남짓 이어지는 짧은 레슨이지만 작은 공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전했다.

"정신없이 땀을 흘리고 나면 복잡했던 업무와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잊게 되고,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저에게 탁구는 운동을 넘어 마음을 비우고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가볍게 즐기는 정도였으나 기본기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탁구동호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는 성경희 행정관도 탁구가 주는 충전의 힘을 강조한다.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탁구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리셋되는 기분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스트레스는 탁구공에 실려 멀리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멀리멀리요.(웃음)"





기다림과 유연함 빗나간 스윙에서 배운 삶의 지혜

모든 공이 마음먹은 대로 코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네트에 걸리고 테이블 밖으로 공이 튕겨 나가는 수많은 실수를 마주하며, 회원들은 탁구대 밖에서도 통하는 삶의 이치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성경희 행정관에게 찾아온 큰 배움은 '기다림'이었다. 초보 시절에는 의욕이 앞서 공 앞에 먼저 달려들었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한 박자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받아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떤 공이든 받아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올랐다.

"상대의 서브를 리시브할 때 '잘 못 받으면 어때? 한 점 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임했더니 오히려 성공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업무에서도 미리 걱정하기보다 자신감 있게 임했더니 문제를 더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현 행정관 역시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유연함을 체득했다. 공이 네트에 걸릴 때 무작정 자책하기보다 라켓 면의 각도나 타점을 빠르게 분석해 다음 기회를 대비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이다. 경기 직전 찾아오는 긴장감조차 "내가 이 순간에 진심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떨림마저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유연함이 만들어 낸 변화다.

구력 4년 차에 접어든 박미선 등기관은 꾸준함의 가치를 강조했다. 실력이 제자리걸음인 듯 느껴질 때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만, 찬찬히 돌이켜보면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다.

엄격한 이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타구에 함께
환호하고 아쉬워해 주는
동료들의 존재는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큰 위안이다.





"성장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행여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태도를 갖게 해주었죠."

판사도 주무관도 한 마음,
높낮이 없는 초록빛 테이블

남양주지원 탁구동호회는 회원들의 실력에 따라 씨앗부, 새싹부, 도전부, 열정부로 세심하게 나누어 누구나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직급에 관계 없이 선배 회원들이 초보 회원들을 직접 코치하며 함께 배우고 응원하는 문화는 탁구동호회가 만들어 낸 따뜻한 풍경 중 하나다.

매월 마지막 주에 펼쳐지는 정기 월례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하나의 축제라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로 활기가 넘친다. 20명 이상의 회원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단식 및 복식 경기를 짜임새 있게 치르는데, 청백전과 MVP 시상 등을 통해 회원들의 승부욕과 재미를 동시에 자극한다.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 직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박미선 등기관에게 탁구동호회에서 맺은 인연은 더없이 귀중하다. 동호회 총무를 맡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성적이었던 성격은 한결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생겨났다.

"동호회를 통해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운동하며 웃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운동 파트너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죠."

탁구대 앞에서는 판사, 참여관, 등기관, 행정관, 주무관이라는 직급이 사라진다. 오직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이라는 하나의 이름만 존재한다. 엄격한 이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타구에 함께 환호하고 아쉬워해 주는 동료들의 존재는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큰 위안이다.



(왼쪽부터) 성경희 행정관, 전경훈 부장판사, 심재광 부장판사, 김유라 행정관, 김수현 행정관, 이현영 행정관, 박미선 등기관

"법원이 차가운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공간이라면, 탁구장은 따뜻한 숨결과 웃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공간입니다"라고 전하는 김수현 행정관의 말처럼, 이들은 서로의 온기로 업무에 지친 영혼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소중한 안식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경세홀에 불이 켜지면, 남양주지원의 탁구동호회원들은 하루의 긴장을 라켓에 실어 힘차게 휘두른다. 2.7g의 작은 공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빗나가도 다시 치면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음 공을 향해 자세를 고쳐 잡는 그 과정이 이미 성장이고, 그 옆에 언제나 함께 웃어줄 동료가 있는 한 오늘의 랠리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보내며 무기력함이나 성장의 정체기를 느끼고 있을 법원 가족들에게 남양주지원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통통 튀는 탁구공 소리와 함께 경쾌하고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띄운다.

"복잡한 사건 기록에 파묻혀 에너지가 닳아간다고 느껴지는 날, 완벽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초록색 테이블 위에서 나만의 '다음 공'을 향해 기분 좋게 라켓을 휘둘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반의 자유

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손호영 부장판사



기차 안에 있다는 것은
훌륭한 부재 사유였다.
나는 두 시간 반 동안
합법적으로, 그리고 떳떳하게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목포지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자, 사람들은 축하 다음으로 "멀겠네요"라고 말했다. 어떤 분은 축하보다 그 말을 먼저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기차로 두 시간 반이 걸렸다. 처음 부장판사가 되는 것은 설레었지만, 매주 그 긴 거리를 오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무엇보다 두 시간 반이 마음에 걸렸다. 요즘 나는 한곳에 오래 붙잡혀 있는 일을 잘 견디지 못한다. 영화관에서도 가끔 '앞으로 두 시간이나 꼼짝없이 있어야 하나' 싶다. 그런 내가 매주 두 시간 반씩 기차를 타야 했다.

첫 출근 날, 새벽 첫차를 탔다. 기차를 놓치는 장면을 너무 성실하게 상상한 나머지 새벽 세 시부터 깨어 있었다. 잠을 더 자기는 틀린 것 같아 일어나 씻고 집을 서둘러 나섰다.

새벽의 기차역에는 낯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말을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 각자의 할 일을 마음속에 품은 채 조용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대학 시절 새벽 버스를 타며 보았던 풍경이 떠올랐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그들의 하루는 이미 출발해 있었다. 그날은 나도 그들 사이에 섞여, 해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다.

기차에 올라 자리를 찾았다. 다행히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모르는 누군가와의 동행을 반길 만큼 넉넉한 마음은 아니었는지, 나는 속으로 조금 기뻐했다.

차 안에는 노모와 함께 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외투를 여며주며 알뜰히 챙겼다. "계란 드실래요?", "음료수 드릴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려요." 노모는 연신 괜찮다고 했고, 아들은 다시 한번 물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 짧은 대화가 유난히 다정하게 들렸다.

맞은편의 누군가는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다. 한잠자도 될 만큼 먼 곳으로 가는 사람 같았다.

나도 눈을 붙여보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역 앞 편의점에서 사 온 바나나맛 우유를 꺼내 마시고 초콜릿을 하나 먹었다. 몸은 첫 출근을 앞두고 긴장해 있었지만, 입안에서는 잠시 초등학생이 되었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나는 두 시간 반 동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 기차는 나를 붙잡아 두는 대신, 다른 일들로부터도 잠시 떼어놓고 있었다. 운전할 필요가 없었고, 집안일을 할 수도, 누군가를 만나러 움직일 수도 없었다. 당장 처리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두 시간 반 동안 공식적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동 중인 사람에게 세상은 답을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판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집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둘 다 소중했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글을 쓰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책을 읽어도 되었고,
노트북을 덮어도 되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되어서 자유로웠다.



Time of Contemplation



그 사이에서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은 자주 뒤로 밀렸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다는 것은 훌륭한 부재 사유였다. 나는 두 시간 반 동안 합법적으로, 그리고 떳떳하게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마트에 다녀와 달라고 하면 대체로 군말 없이 나섰다. 늘 "산책 삼아 갔다 오지"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나는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았다. 생수와 우유와 휴지를 들고 돌아오는 산책이라니, 지나치게 실용적인 산책이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무엇을 사 오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집을 나서 마트까지 걷는 동안만큼은 아버지도 잠시 자기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장바구니는 볼일이었고, 오가는 길은 작은 휴가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게도 목포로 가는 길은 두 시간 반의 자유가 되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몇 개만 보려던 쇼츠에 금세 빠졌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두 시간 반을 남의 강아지가 소파에서 떨어지는 영상에 모두 내주기는 아까웠다.

노트북을 꺼내 무엇이든 써보기로 했다. 몇 문장을 적다가 문득, 이렇게 별다른 목적 없이 이야기를 쓰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글씨쓰기 숙제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문장을 공책에 따라 쓰는 일이 곧 지루해져, 어느 날부터 내가 만든 이야기를 적었다. 선생님은 별다른 지적 없이 도장을 찍어주셨고, 나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열 살 남자아이의 이야기였으니 싸우고, 화해하고, 의리를 지키고, 승부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삽화도 그리고 나름의 세계관까지 만들었다. 그러다 글씨쓰기 숙제가 끝났다. 숙제는 끝났는데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감질이 난 나는 다른 공책에 뒷이야기를 이어 썼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왠지 부끄러워져 공책을 숨겼다. 그것은 나만의 은밀한 취미가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숨겨둔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공책을 들킨 날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했다. "너 이거 잘 썼더라. 재미있던데?" 나는 공책을 들킨 일은 곧 잊었다. 대신 어디가 재미있었는지, 정말 잘 썼는지 자꾸 물었다. 비밀이 밝혀진 부끄러움보다 칭찬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만큼 나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어른이 된 뒤에는 상상하는 일이 줄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리하고, 쟁점을 나누고, 근거를 찾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내 이야기를 쓰는 일은 어려워졌다. 어느새 상상보다 쓸모와 정확성을 앞세우는, 꽤 공무원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만큼은 잠시 그 순서를 바꾸었다. 마음 가는 대로 몇 줄씩 써 내려가다 보면, 가끔 그 아이가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 이제 내가 쓰는 것은 거대한 모험담이 아니라 출근길과 아버지의 마트길, 바나나맛 우유에 관한 이야기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때는 몰랐던 마음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다.

목포지원 사람들에게 기차를 오래 타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다들 힘들다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타보니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서 좋다고 했다.

물론 그 긍정의 일부는 체념일 수도 있다. 매주 타야 하는 기차이니 좋아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유리했을 것이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시간에 애정을 붙이는 능력도 삶을 살아가는 재주일 것이다.

목포역에 도착하면 '호남선 종착역'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보인다. 처음에는 그 글자를 보며 정말 멀리 왔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멀어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멀었기 때문에 얻은 시간도 있었다. 가까운 곳으로 출근했다면 갖지 못했을 두 시간 반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글을 쓰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책을 읽어도 되었고, 노트북을 덮어도 되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되어서 자유로웠다.

목포에 오길 잘했다. 멀리 와서야 나는 나에게 조금 가까워질 수 있었다.

나의 러닝 도전기

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손우정 행정관



주지하다시피 러닝이 유행이다. 나름 인터넷 4단(5단이라 생각했으나, 최근 같이 근무하는 '다빈찡'의 계장님 '돼지 파티[1] 아세요?'라는 기습공격에 답을 하지 못하여 1단을 낮추었다)을 자부하는 나 역시 유행의 흐름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도시 러닝 크루의 민폐랄까,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찍는 이들의 속내를 대충 감안하는 나는 이 흐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비싼 소고기를 굽다가 '어, 탄다'라고 하면서 금방 뒤집는 것처럼, 어느 날 러닝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2025년 11월 4일 이후로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날은 딱히 무언가를 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씨도, 안 좋은 날씨도 아닌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보통 날이었다.

사실 2년마다 찾아오는 건강검진을 대비하고, 헤어지자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허리를 착 감싸고 있는 러브핸들[2]과의 악연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해보았다. 러닝 초보에게 도움 되는 유명한 모 어플과 함께 말이다.

이 어플의 8주 완성 30분 달리기 코스를 도전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 300분이 아니다. 8주 완성 30분 달리기이다.

처음은 1분 뛰기 2분 걷기부터 시작한다. 1분 뛰기다. 그러나 3주 정도 하다가 우측 무릎 밑 거위발 건염으로 두 차례 포기 이후에 '이 나이에 무슨 러닝이고… 아, 짜증나' 이 생각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움직인 것이다. '정답은 180입니다'라는 어느 유투버의 말을 듣고.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은….

다음 편에….

놀라지 마시라. 최근 유행한(?) 넷플릭스의 〈맨 끝줄 소년〉을 흉내 내어 보았다.
필자가 작문 과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작가도 아니고, 〈법원사람들〉 팀과 밀양지원 직원들에게 민폐만 안 끼치길 바랄 뿐인 사람인데, 다음 편이 있을 리가 없지 아니한가?

여튼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은 정답이라는 단어였다.
필자는 은근히 나이가 많다. 사실 나이가 너무 무거워서 어떤 날은 숨이 콱 막히기도 한다. 이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아직 젊다. 다행이다.
살면서 정답이라는 글자는 안정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준다. 나의 특유한 반골 기질일 수도 있는데, 정답 말고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도 정답이라고 부르고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관념이 계속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다. 정답에 끌렸다고 할까? 뭐 좀 들어볼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다.

---

1) 각주까지 찾아오신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린다. 돼지 파티란 다양한 고칼로리의 음식(치킨, 떡볶이, 마라탕-본문의 '다빈찡'이 좋아한다 등)을 푸짐하게 차려 놓고 배가 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고 즐기는 모임을 말한다.
2) 오해하지 마시라 지금 독자들이 만지고 계시는 뱃살 그 부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부분에서 흉내만 내어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 흉내를 그럭저럭 내기만 하면
남들보다 은근히
앞서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정답은 180입니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케이던스가 1분에 180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1분에 양발을 180번 교차하며 앞으로 내 뻗어서 달린다는 말이다. 세계마라톤선수권자, 한국선수권자도 그렇다고 한다. (여기서 '에이 뭐야, 다 아는 거잖아'라고 하시면서 주당 러닝 마일리지 좀 쌓은 분들은 빨리 이번 호의 재미난 다른 글들을 읽으시길.)

그 당시의 내가 이 케이던스 180이 가능했겠는가?
답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부분에서 흉내만 내어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 흉내를 그럭저럭 내기만 하면 남들보다 은근히 앞서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잘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말이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굳이 개별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개인연금계좌에서 S&P 500, 나스닥 100을 을 각각 반반 사고 '내도 투자합니다.'라고 흉내 내는 것 역시 '케이던스 180이 정답이다'라는 명제를 나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원리인 것이다. 아주 뛰어난 성과를 의욕 하지 않고 대충 흉내 내어도 잘하려고 애쓰는 개별 주식 투자자보다 성과가 좋은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러닝으로 다시 리턴하면.
이 글을 읽는 우리 직원분들 및 가족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케이던스 180이 정답이라는데 나는 지금 측정해 보니 150~165 사이다. 그럼 더 빨리 뛰어야겠네. 우와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금방 숨이 차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180으로 만들지?'

포인트는, 만약 공부를 예로 든다면 공부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 '나는 합격 점수에 못 미치네. 좀 더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의 정답을 외우고, 즉 공부한 것처럼 흉내 내고(단순 암기가 공부가 아니라는 의미보다는 본질적인 학습이 아니라는 의미로 썼다) 다시 기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먼저 무조건 180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다. 즉 보폭을 평상시 달리던 것보다 확 줄이면(제자리 뛰기보다 조금만 더 발 간격을 벌리는 것이다) 누구라도 케이던스 180이 가능하다. 이렇게 뛰면 발을 여러 번 빨리 움직이더라도 총거리가 짧으니 결국 옆에서 파워 워킹을 하는 할머니보다 늦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애초에 우리는 달리기를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럭저럭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기에 할머니보다 늦은 속도라도 상관이 없고 부끄럽지도 않다.
이렇게 달리면 다른 말로 '존2러닝', '슬로우 러닝'이 된다.[3]

우리(최소한 나)처럼 운동에 하등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달리게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이것이다. 다리 간격이 좁으니 우선은 무릎 부상도 잘 생기지 않는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도 한두 번 정도 도전해 보시라. 생각보다 쉽게 계속 잘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달리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는 애초에 잘 달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즉 아주 늦은 속도로 달리니까, 나를 괴롭히는 ① 내가 실수한 문건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② 착한 과장님에게 쓸데없이 개겨서 후회하는 나의 아픈 마음, ③ 좁쌀만 한 문제를 농구공처럼 크게 걱정하는 마음 등이 왔다가 사라지는 동적 명상의 상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체중이 감량되며, 러브핸들과는 작별 준비를 시작하게 되고, 새롭게 나오는 턱선을 만날 수 있다.

끝으로 필자는 약 8개월 동안 9kg이 감량되었고, 10km를 1시간 이내로 달려 보았으며, 최장 거리로는 15km도 달려 본 사람이 되었다.[4]
여러분들도 흉내 한번 내어 보시라.

나의 흉내 내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 같다.

3) 같은 사무실의 '향기 계장'에게 슬로우 러닝에 대해서 가끔 말했는데 애 키우면서도 고생하는 그녀도 최근 '귀에서 피나요'라는 말과 함께 러닝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계속하길 빌어 본다.
4) 같이 근무하는 '갑이 오빠'(오해 금지, 필자는 남자다)가 같이 뛰자고 하는데 나의 러닝은 애초에 혼자에 특화되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



우리 집 오븐이 부풀려 준 행복의 황금비율

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김은서 주무관



키보드와 마우스만 두드리던
서늘한 손끝으로
말랑말랑하고 온기 있는
반죽의 질감을 만지고 있으면,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주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서류의 늪에서 탈출해 오븐 앞으로, 치유의 시작

법원의 아침은 언제나 정적이지만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우는 산더미 같은 사건 기록들과 서류들, 그리고 가끔은 민원대 앞에서 마음에 커다란 도를 닦게 만드는 수많은 민원인까지. 종일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고 행정 지원을 하다 보면, 퇴근길 즈음엔 영혼이 탈탈 털려 껍데기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법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유의 무거움과 치열한 스트레스 속에서 저를 구원해 준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퇴근 후 또는 주말마다 열리는 저만의 작은 주방 아틀리에, '베이킹'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에게 직접 간식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나 주말 아침, 하얀 밀가루를 팍팍 체 치고, 달걀을 사정없이 풀고, 설탕을 쏟아부으며 반죽을 마구 치대다 보니 신기하게도 낮 동안 쌓였던 격무의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키보드와 마우스만 두드리던 서늘한 손끝으로 말랑말랑하고 온기 있는 반죽의 질감을 만지고 있으면,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주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버터 향은 낮 동안 법원에서 잔뜩 굳어 있던 제 뇌세포들을 말랑하게 깨워주는 최고의 피로 회복제입니다. 특히 오븐 문을 열고 갓 구워낸 소시지빵이나 달콤한 딸기케이크를 내놓을 때, 제 최고의 팬이자 가장 엄격한 평론가인 두 딸이 눈을 반짝이며 달려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최고야!"라며 입가에 크림을 묻히고 우물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낮 동안 쌓인 업무 피로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베이킹이 주는 첫 번째 행복이자 일상을 버티는 원동력입니다.

남편을 위한 달콤한 내조

법원에 다니는 사람치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지만, 저 역시 직업병 때문인지, 홈베이킹을 할 때도 제 저울은 늘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밀가루 몇 그램, 베이킹파우더 0.5그램의 미세한 차이로도 결과물의 식감과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베이킹의 세계는 참 정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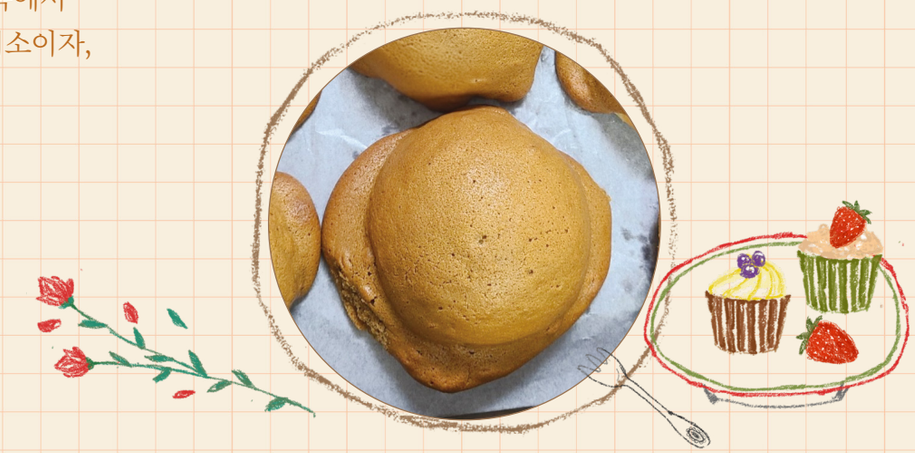
그동안 제 손을 거쳐 간 메뉴들만 해도 화려합니다. 밤새 정성껏 끓인 얼그레이 시럽과 찻잎을 듬뿍 넣어 은은한 향이 일품인 얼그레이 케이크, 초코칩 쿠키, 진하고 꾸덕한 풍미로 입안을 감싸는 치즈케이크까지, 제 주방은 늘 달콤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사실 전문 베이커리 매장에서 파는 것처럼 자로 잰 듯 반듯하고 화려하게 예쁜 모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모양이 조금 투박하기도 하고, 구움색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화려함 대신,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지는 '정직한 맛'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장했습니다.

이 기다림과 정성의 미학은 제 법원 생활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일터에 다니다 보니 서로의 격무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끔은 부부 동반으로 영혼이 가출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남편이 유독 까다로운 부서 업무나 대형 민원에 시달려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날,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해 오븐의 온도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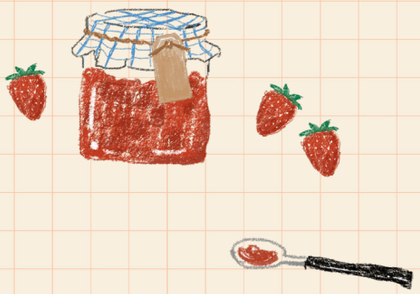
주말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고소하고 쫄깃한 베이글을 데치고 구워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짭조름한 소금빵을 함께 만듭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할지언정 온 정성을 가득 담아 구워낸 빵들을 식탁에 올리면 남편의 얼굴에 가장 먼저 환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고생 많았지?"라는

저에게 베이킹은 법원 생활 속에서
숨구멍을 틔워주는 작은 대피소이자,
차가운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동료들에게
달콤한 정과 행복을
나누는 가장 완벽한
소통창구입니다.

Baking







백 마디 말보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정성 가득한 휘낭시에 한 조각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응원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오븐은 우리 부부가 법원이라는 치열한 일터에서 함께 지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하고 달콤한 연료 보급소인 셈입니다.

"파는 것보다 맛있다!"
법원에 퍼지는 달콤한 소통과 기쁨

손재주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제 오븐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이제 제 베이킹은 우리 가족들만의 소박한 행복을 넘어, 매일 고생하는 우리 법원 동료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활력을 배달하는 가장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말 내내 정성껏 모양내 구워낸 상투과자, 노릇노릇한 휘낭시에,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구움과자 박스를 양손 가득 들고 출근해 사무실과 과방 테이블 위에 슬며시 올려둘 때의 짜릿함은 베이킹을 하는 사람만 아는 특권입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기성품처럼 아주 매끄럽지는 않아서 동료들이 그저 예의상 맛있다고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동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은서 주무관님, 이거 진짜 주무관님이 구우신 게 맞아요? 웬만한 유명 베이커리 빵보다 훨씬 맛있어요!", "모양은 홈메이드인데 맛은 완전 천상의 맛이네요. 파는 것보다 백배는 맛있어요!"라며 동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줄 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듯한 보람으로 가득 찹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어도 재료의 아낌없는 풍미와 정성이 입안에서 정직하게 전해진 덕분이겠지요. 무거운 사건과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미간에 주름이 팍 가 있던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제 정성 가득한 얼그레이 케이크 한 조각, 촉촉한 치즈케이크 하나를 맛있게 드셔주시는 모습을 볼 때 제 기쁨은 배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 빵을 먹고 동료들이 감탄할 때마다, 옆에 있던 제 남편의 어깨가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는 점입니다. 동료들이 "계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매일 이런 맛있는 빵을 드시니 너무 부러워요!"라고 칭찬을 건네면, 남편은 짐짓 덤덤한 척하면서도 입꼬리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곤 메시지로 이 소식을 아이처럼 해맑게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아내 칭찬을 들으며 한껏 뿌듯해하고 어깨가 으쓱해진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제 베이킹이 주는 아주 커다란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파하거나 레시피만 나열하는 지루한 취미였다면 진작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베이킹은 법원 생활 속에서 숨구멍을 틔워주는 작은 대피소이자, 차가운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동료들에게 달콤한 정과 행복을 나누는 가장 완벽한 소통창구입니다. 내일도 출근해서 열심히 서류를 검토하고 법원의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제 마음속엔 벌써 '이번 주말에는 어떤 빵을 구워볼까'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두 딸과 남편, 그리고 언제나 법원을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동료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힘내시고, 조만간 또다시 맛있게 열릴 제 행복한 오븐을 기대해 주세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국제사법교류의 역사와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글. 고선미 기록연구관(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에서는 2013년부터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주요 인사가 해외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반대로 해외 인사의 대법원 방문으로 수령한 기념품을 '국제사법교류 선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현재 70개국(미상, 국제사법기관 제외)의 50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대법원 청사 1층 법원전시관과 복도, 그리고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전시실에 상설 전시하고 있는데, 올해 9월 1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태 대법원장회의)에 즈음하여 대법원 청사 내 국제사법교류 선물류 전시공간을 개편합니다. 법원전시관에는 대법원장의 아태 대법원장회의 참석이나 해외순방, 세종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수령한 선물로 교체하고, 청사 복도에 덩그러니 있던 선물류 진열장을 철거하여 대강당 출입구 주변에 이번 아태 대법원장회의 참가국에서 기 수령한 선물을 중심으로 전시 공간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달의 법원사〉에서는 선물류 전시 개편 소식을 전하며 국제사법교류의 역사와 관련 자료를 소개하려 합니다.



대법원 법원전시관의 국제사법교류 선물류 전시 코너



대법원 본관 복도 1층 국제사법교류 선물류 전시 진열장

1945년 광복을 맞았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면직조치하고 법조인 자격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 법원을 재편하였습니다. 1946년 11월 한미법학협회[1]가 설립되었습니다. 미군정 사법부(司法部)의 외국인 법률고문과 함께 이후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초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이인, 헌법의 기초를 다진 유진오 박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측의 발표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인의 논문을 영어로 옮기며 통·번역과 간사 역할을 수행한 황성수 박사는 '이 협회에서 제기된 법률문제가 대부분 곧바로 법률의 제·개정으로 연결되리만치 권위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2] 이어서 1947년 5월 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상기 대법관, 전규홍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장경근 서울지방심리원장, 이호 서울고등검찰청 검찰관, 강병순 사법부 변호국장 겸 법원국장 등 5명이 미국 상하원과 연방대법원 등을 방문해 4개월 동안 미국의 사법제도를 배우고 돌아와[3] 미국사법제도시찰보고서[4]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부터 1959년까지 법관 12명을 미국에, 1명을 호주에 파견하였습니다. 1953년에 이광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1956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권순영[5], 조규광 서울지방법원 판사, 변옥주 서울고등법원장, 1959년에 김세완, 허진 대법관이 해외 사법제도를 둘러보았습니다.[6]



1956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수를 받던 권순영 서울지방법원 판사(셋째 줄 왼편 두 번째)

1) 한미법률가협회(Korean-American Lawyer Society)로도 불림. 최종고, 한미법률교류 100년사, 서울대 법학 제23권 5호, 1982. 11. 46-64쪽.
2) 법률신문 1982. 9. 13자.
3) 방미조선법관 팬타곤 시찰(동아일보, 1947. 7. 30.), 견미 사법사찰 금일 인천입항(경향신문, 1947. 8. 31.), 미국 갔던 사법관 시찰마치고 귀국(동아일보, 1947. 9. 3.), 미 사법시찰단 대법정 강연(조선일보, 1947. 9. 14.).
4) 법정 2권 9호, 1947.
5) 2019년 유품 38건을 수증하여 법원사자료로 보유하고 있음.
6)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345~346쪽.

1959년 '법관의 조사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48호)'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이 사법사무에 필요한 법률, 경제, 정치, 사회 등에 관한 특수사항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법관을 지명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까지 법관 51명을 사법연구원으로 지명하였는데, 한성수 대법원판사는 배심제도, 사광욱 대법원판사는 입증책임, 나항윤 대법원판사는 양형, 최윤모 대법원판사는 채권자대위에 대해 각각 조사연구하고, 민문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요크-안트와프 규칙, 이광석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미의 치안재판을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7)]



허진 대법관 정년퇴임 기념사진(1959. 9. 11.)
두 번째 줄 왼편 여섯 번째 한성수, 여덟 번째 나항윤, 열한 번째 최윤모, 열두 번째 사광욱. 네 번째 줄 왼편 여섯 번째 민문기.

그리고 1984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며 2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연수와 2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연수에 법관을 선발하고 귀국 후에는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해외연수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워 1992년 서기관과 사무관 각 1명이 6개월 동안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일정 기간 해외 사법제도를 시찰하거나 연구하는 것과 달리 국제기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을 2008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7)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345쪽.

이러한 인적 교류를 넘어 대법원장의 국제회의 참가, 해외순방, 주요 외빈의 대법원 청사 방문 등 기관을 대표하는 국제사법교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10월 민복기 대법원장 초청으로 태국 프라보부 후다싱(Prabob Hutashingh) 대법원장이 내한하였습니다. 외국 대법원장이 공식 내한한 첫 사례입니다. 이듬해 12월 태국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민복기 대법원장은 태국을 공식 방문하고 이어서 대만과 일본을 비공식 방문하였습니다.



민복기 대법원장이 태국 방문 시 받은 태국 백상훈장(1971. 12. 8.)

이러한 활동에 이어 1972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5회 아시아사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호주, 대만,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월남 등 14개국의 대법원장이 참석하여 '위헌법률심사제도와 외국 판결의 상호집행'을 의제로 토론하였고, 민복기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아시아 사법회의는 1962년 필리핀 대법원장이 제의하여 1963년에 첫 회의가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는 1970년 4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4회 회의에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제5회 아시아사법회의 기념우표
(소장처 미상)



아시아사법회의 오늘 개막, 14개국 50여 대표 참가
(법률신문, 1972. 9. 25.)



아시아사법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민복기 대법원장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회 아태 대법원장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정례화되었습니다. 1999년 제8회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2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민·상사 사법공조 활성화'를 논의하며 '사법공조 서울선언(Seoul Statement on Judicial Cooperation)'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윤관 대법원장은 한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 조약을 모델 사례로 직접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높아진 사법부의 신뢰와 국제공조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8회 아태 대법원장회의(1999. 9. 7.~10.)
앞 줄 정중앙에 윤관 대법원장

12년이 지난 2011년 제14회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2개국에서 대법원장 27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사법행정 현대화 및 사법신뢰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0년 특허소송에 이어 2011년 민사소송에 도입한 한국형 전자소송을 집중 소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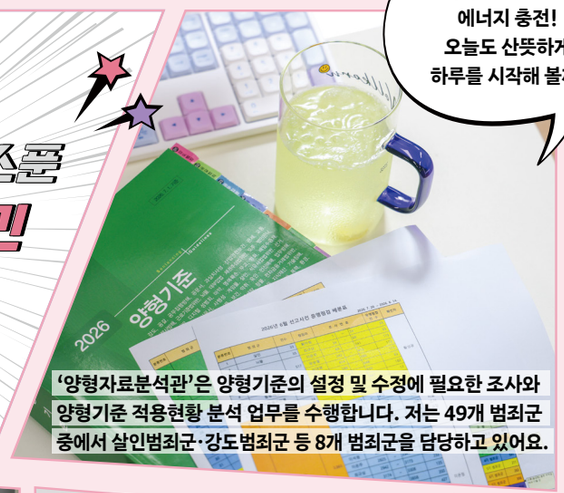
제14회 아태 대법원장회의 개막식(2011. 6. 12.)

올해 9월 16일부터 제20회 아태 대법원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논의주제는 '사법독립 및 인공지능 시대 사법부 역할'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석 국가에서 기 수령한 선물류를 선별하여 대법원 1층 대강당 부근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 회보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전시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륙법계 전통에 영미법계 제도를 융합하며 선진 사법제도와 문화를 배우던 우리 사법부는 이렇듯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우리의 사법제도와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보급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일상에 햇살 한 스푼
양형위원회의 비타민
황자림의 하루

사진. 홍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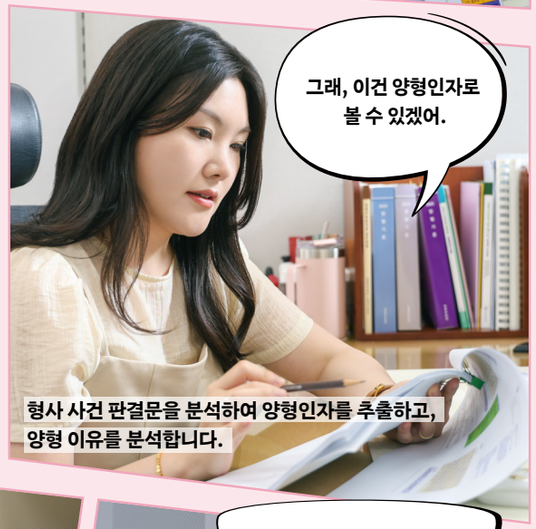
비타민 한 잔으로
에너지 충전!
오늘도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기준의 설정 및 수정에 필요한 조사와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49개 범죄군 중에서 살인범죄군·강도범죄군 등 8개 범죄군을 담당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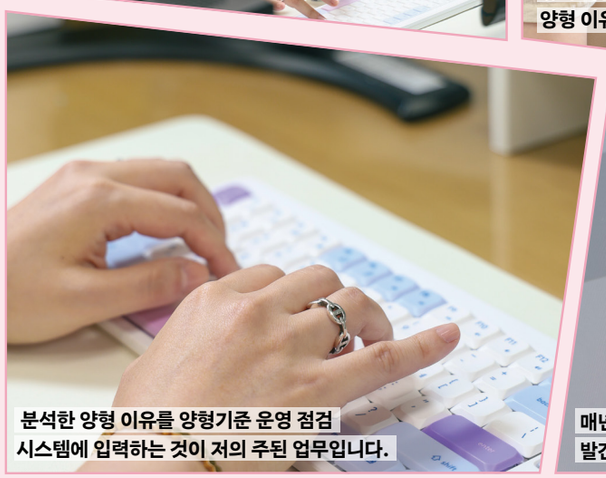
판결문이 아무리 많아도
분석은 꼼꼼히 해야지.

모니터에는 항상 형사 사건 판결문과 양형기준 운영 점검 시스템을 동시에 띄워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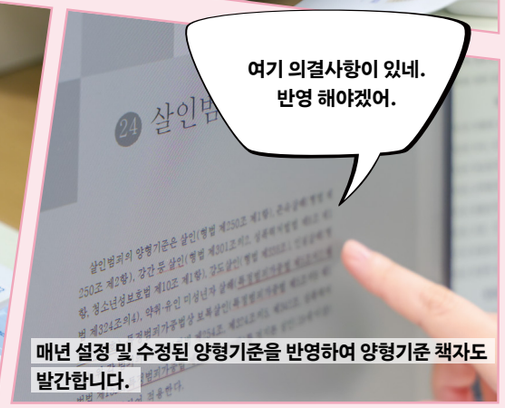


그래, 이건 양형인자로
볼 수 있겠어.

형사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여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양형 이유를 분석합니다.



분석한 양형 이유를 양형기준 운영 점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여기 의결사항이 있네.
반영 해야겠어.

매년 설정 및 수정된 양형기준을 반영하여 양형기준 책자도 발간합니다.



검찰청에 가서 관련
형사기록을
살펴보고 오자.

양형기준의 설정과 수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사건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이 양형인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른 분석관들과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분석 결과에 틀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로를 씻어내는 나만의 사뿐한 나들이







햇살 같은 에너지를 선물하는
황자림 행정관님을 칭찬합니다!

Q. 행정관님은 평소 어떤 분이신가요?

남다른 배려심으로 팀을 위해 조용히 마음 쓰는 게 보이는, 보배 같은 후배입니다. 마치 햇살처럼 항상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Q. 기억에 남는 따뜻한 미담이 있나요?

바쁜 업무 중에도 직접 커피를 내려 동료들에게 나눠주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마음이 참 예뻤어요.

Q. 행정관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육각형을 품은 둥근 원

원은 내면의 조화와 인품을 상징하고, 육각형은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라고 합니다. 황자림 행정관은 이렇게 균형미와 세련미를 모두 지닌 멋진 사람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백년사기념관을 가다’

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법원을 둘러보는 여행이라니,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백년사기념관’에서 출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895년 진주재판소로 시작된 진주지원의 100여 년 역사가 오롯이 담긴 이곳을 둘러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진주라는 도시의 오랜 역사가 궁금해지기 때문이다. 과거 법원에서 사용했던 각종 기록과 사무기기, 진주지원과 청사의 변천을 보여주는 백년사기념관을 시작으로 진주성과 촉석루, 남강을 따라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는 특별한 여정. 이번 가을을 열어 줄 의미 있는 법원 여행을 소개한다.

백 년의 시간을 담은 공간
백년사기념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청사 내부에는 지역 사법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년사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다. 2014년부터 운영된 이곳은 평일에 상시 개방되어 있어 법원을 찾은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백년사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법원의 역할과 대한민국 법원 조직도, 진주지원의 연혁 및 관할 지역을 소개하는 전시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역대 지원장과 시대별 청사 사진, 주요 방문 및 기념사진 등에는 진주지원이 걸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시공간을 따라 걷다 보면 과거 법원에서 실제로 작성하고 보관했던 각종 기록과 자료가 눈앞에 펼쳐진다. 대법원 판례집과 법원 전화번호부, 직원 재직 현황, 지출원인 행위부, 도서원부, 신고서철, 판결문 등은 당시 법원의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없이 증언한다. 오늘날에는 전자소송과 각종 온라인 사법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사건과 재판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종이 문서로 작성하고 분류해 보관해야 했다. 기념관에 보존된 자료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사건 기록과 문서 관리 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셈이다.

과거 법원의 업무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무용품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롤식 소인기와 확정일자 고무인, 순찰시계, 압인기, 넘버링 기기, 재택 당직용 휴대전화기, 청인과 관인, 등사기 등은 당시의 업무 환경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수동타자기와 전동식 타자기, 1900년대 말 업무용 컴퓨터까지 나란히 놓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서를 직접 손으로 작성하던 시기부터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법원 업무 환경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실감하게 된다.







백년사기념관에 전시된 자료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우리나라 지역 사법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의 사무기기와 현재의 사법서비스를 나란히 견주어 보면 사법행정의 변화와 발전 과정이 한층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원의 업무 방식 역시 종이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종이로 이루어지던 각종 기록과 업무는 전산화되었고, 현재는 전자소송포털 등을 통해 국민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

전시물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시대별 법원 행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이 공간을 둘러보는 소소한 재미다. 기념관에는 민사·형사재판 등 재판의 종류와 주요 사법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되어, 등기의 종류와 과거 등기소의 모습, 달라진 호적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법제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법관과 사법보좌관, 참여관이 착용한 법복은 물론 일제강점기 법관의 법복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시대별 법복을 비교하며 사법제도와 법원 구성원의 모습이 걸어온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백년사기념관에 전시된 자료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우리나라 지역 사법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시대에 따라 법원의 모습은 끊임없이 달라져 왔지만,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실현하려는 본질만은 변하지 않았다. 백년사기념관은 그 발자취를 통해 변화와 불변의 시간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1895년부터 이어진
진주지원의 역사

백년사기념관에서 진주지원 청사의 변천 과정을 담은 사진과 옛 진주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를 둘러보다 보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걸어온 진주지원의 궤적이 눈앞에 선연히 떠오른다.

진주지원의 역사는 1895년 5월 15일 문을 연 진주재판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법률 제1호와 칙령 제114호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 최초의 재판소인 진주재판소가 자리를 잡았다.
1896년 13도제가 시행되면서 경상남도가 분리되고 진주가 도청 소재지가 되자, 같은 해 8월 15일 진주재판소는 경상남도재판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04년에는 경상남도 지역 30개 군을 관할할 정도로 성장해 지역의 주요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사법제도가 일본식 3심제로 개편되면서, 1908년 8월 1일 경상남도재판소는 대구공소원 소속 진주지방재판소로 재편되었으며,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아픈 역사를 겪어야 했다.
1909년에는 진남구재판소와 마산구재판소, 거창구재판소, 밀양구재판소 등이 새로 들어섰으나, 같은 해 11월 1일



통감부령에 따라 진주지방재판소가 폐지되면서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재판소로 축소·개편되었다. 1912년 4월 1일에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으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다.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며 부산지방심리원 진주지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등으로 조직과 명칭이 잇따라 달라졌다. 1983년 9월 1일에는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개편되었으며, 1992년 5월 1일부터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진주시를 비롯해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을 관할하며 경남 서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법원의 시설과 업무 방식은 달라져 왔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법원의 소임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진주지원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서비스를 향해 그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진주성

쉼이 있는 발걸음 진주의 역사와 로컬 맛집

진주지원의 백년사기념관을 둘러보았다면, 잠시 걸음을 옮겨 진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맛을 함께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진주지원 인근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명소들이 자리해, 바쁜 일상 중에도 여유와 휴식을 선사한다. 관광 명소 사이사이 들러볼 전통 있는 맛집은 진주 여행의 깊이를 더한다.

진주의 역사를 품은 진주성

진주성을 찾으면 가장 먼저 웅장한 성곽과 남강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두 차례의 진주성 전투가 펼쳐진 역사적인 장소이자, 오늘날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성곽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 유적과 마주하며, 진주가 간직한 오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남강을 내려다보는 촉석루

진주성을 대표하는 누각인 촉석루는 남강 절벽 위에 자리한 진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탁 트인 누각에 올라 남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과 함께 진주만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온전히 전해진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아온 촉석루는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해 질 무렵 붉게 물드는 남강과 어우러진 풍경은 진주를 대표하는 절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진주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남강

진주 도심을 따라 흐르는 남강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남강은 진주성과 촉석루를 따라 흐르며 오랜 시간 진주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어, 진주성과 남강을 함께 살펴보면 지역이 간직한 역사적 의미를 한층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진주성과 촉석루를 둘러본 뒤 남강 일원을 거닐어 보면, 진주의 역사와 오늘날 시민들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풍경을 만나게 된다.

촉석루에서 내려다 본 남강





천황식당

1915년부터 10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진주의 대표 노포 식당이다. 특히 신선한 한우 육회를 올린 진주 육회비빔밥은 이곳을 대표하는 메뉴로, 고소한 참기름 향과 다양한 나물, 특제 고추장이 어우러져 진주만의 깊은 맛을 전한다. 함께 나오는 선짓국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더해 한 끼 식사를 더욱 든든하게 채워준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만큼 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진주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하다.





수복빵집



194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진주의 대표 노포 빵집이다. 대표 메뉴인 찐빵은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변함없는 맛과 정겨운 분위기는 진주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더해준다. 찐빵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진주성이나 남강을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원의 업무 환경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져 왔다.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는 전산화를 거쳐 디지털 기반의 사법서비스로 확대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전자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업무 방식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법원의 기본적인 소임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백년사기념관에 보존된 과거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사법서비스가 오랜 시간 축적된 제도와 노력의 결실임을 말없이 보여준다.
진주지원과 백년사기념관을 통해 지역 사법의 역사를 돌아보고, 진주성과 촉석루, 남강, 국립진주박물관 등 진주의 역사문화 공간까지 함께 둘러본다면 진주라는 지역이 간직한 다양한 역사와 가치를 한층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깊어 가는 가을밤 달빛에 띄우는 그리움

글. 편집실



한낮을 달구던 열기가 스러지고, 해 질 녘이면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가을의 길목입니다.
계절이 바뀌며 찾아오는 고요와 쓸쓸함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레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고,
잊고 지내던 소중한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은은한 달빛처럼 피어오르곤 합니다.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지거나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
한용운의 시 「달을 보며」를 꺼내어 가만히 읊조려 봅니다.
차디찬 밤공기 속, 자던 옷을 고쳐 입고 뜰에 앉아 달을 건너다보는
시인의 정직하고 서툴 만큼 솔직한 태도는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듭니다.

바라보는 달이 마침내 사랑하는 이의 얼굴로 겹쳐지고,
그 찬란한 달빛을 비추어 스스로 그믐달이 되어가는 순정한 마음.
거창한 수식 없이도 마음을 울리는 시인의 문장을 가만히 따라 적으며,
차오르고 기우는 달처럼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그리워하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문장: 그리운 당신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그리웠습니다
자던 옷을 고쳐 입고 뜰에 나와 퍼지르고 앉아서 달을 한참 보았습니다

달은 차차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이 역력히 보입니다
간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더니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그믐달이 된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
아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 한용운「달을 보며」

필사를 위한 여백

(위의 구절 중 마음이 머무는 문장을 천천히 옮겨 적어 보세요.)

어느 날, 타인의 길 위에서 나를 읽다

영화〈쇼타씨의 마지막 출장〉

글. 편집실

가을의 길목인 9월에는 유난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스며든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길 위에서 펼쳐지는 영화 〈쇼타씨의 마지막 출장〉은 타인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두 남자의 여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은퇴자와 길을 잃은 청춘이 나누는 뜻밖의 위로, 그 조용한 교감에 동행해 보자.



영화 〈쇼타씨의 마지막 출장〉 포스터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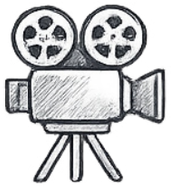


바뀐 봉투 속에서 피어난 뜻밖의 여정

영화는 일본의 어느 작은 라멘 가게에서 시작된다. 평생을 바친 정밀가공 공장의 문을 닫고 한국으로 마지막 출장을 앞둔 일본인 대표 '쇼타'와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의 고향인 에노시마로 무작정 찾아온 한국 청년 '대성'. 우연히 한 테이블에서 술잔을 나누게 된 두 사람 사이에서 쇼타의 '사직서'와 대성의 '편지'가 뒤바뀌는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진다.

서로의 봉투가 바뀐 사실을 모른 채 각각 한국과 일본으로 향한 두 사람은 출발지이자 목적지가 교차된 국경 너머에 당도한 후에야 상대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다. 말도 언어도 완벽히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그들은 자신의 일 대신 상대방이 미처 전달하지 못한 사직서와 편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 낯선 길을 걷기 시작한다.

내 삶의 문제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솔직한 마음이
타인의 삶을 대신
살피는 과정에서
비로소 또렷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타인의 길을 걸으며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영화는 에노시마의 고즈넉한 바다 풍경과 한국의 차분한 출장지 풍경을 번갈아 비추며, 서툴지만 다정하게 타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두 사람의 여정을 차분히 포착해 낸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던 쇼타는 청춘의 뜨겁고 서툰 연서를 품은 채 걸으며 자신이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과 순수를 떠올린다. 반대로 이별의 아픔에 갇혀 있던 대성은 일평생의 무게가 실린 노신사의 사직서를 들고 다니며 자신이 마주할 삶의 책임감과 묵직한 세월의 깊이를 깨닫는다.

상대의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지난날과 현재를 관조하는 법을 배운다. 내 삶의 문제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솔직한 마음이 타인의 삶을 대신 살피는 과정에서 비로소 또렷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화 〈쇼타씨의 마지막 출장〉 스틸컷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마음의 이정표를 찾아가는 길

영화 〈쇼타씨의 마지막 출장〉에서 '출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내 안의 고집과 아픔에서 벗어나 타인의 세계로 잠시 건너가 보는 삶의 여행을 뜻한다.

때때로 우리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인생 앞에 눈앞이 아득해지곤 한다. 영화는 뜻하지 않은 오해와 우연 속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려 애쓰는 일, 그 소박한 발걸음이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타인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본 경험은 지나온 길을 다정하게 정리하는 온기가 되어주고, 비워낸 자리에는 다음 계절을 살아갈 새로운 용기를 채워준다. 9월의 서늘한 바람 속에 잠시 멈춰 서서 내 손에 쥐어진 마음의 봉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Movie Info

- 영화: 쇼타씨의 마지막 출장(2026)
- 감독: 이주형
- 출연: 진영, 오타니 료헤이 외
- 줄거리: 각자가 품어 온 '사직서'와 '편지'가 뒤바뀐 두 남자가 서로의 진심을 대신 전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맨땅에 헤딩은 그만!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아이디어 회의

글. 편집실



"다음 달 부서 행사 아이디어 좀 내봐."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얀 모니터만 노려보며 한숨 쉬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만, 아무리 궁리해 봐도 매년 거기서 거기인 뻔한 기획만 떠오르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막혀 답답할 때, AI는 최고의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되어준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던져볼 수 있고, 흩어진 아이디어를 깔끔한 기획안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AI와 함께 기획의 뼈대를 세우는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해 보자.

Step 1. 막막함을 줄이는 아이디어 초안 요청하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창의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고할 '시작점'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획을 만들려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가벼운 초안을 요청해 보자.

- How to 브레인스토밍의 물꼬를 트기 위한 가벼운 기본안이나 방향성 제시를 먼저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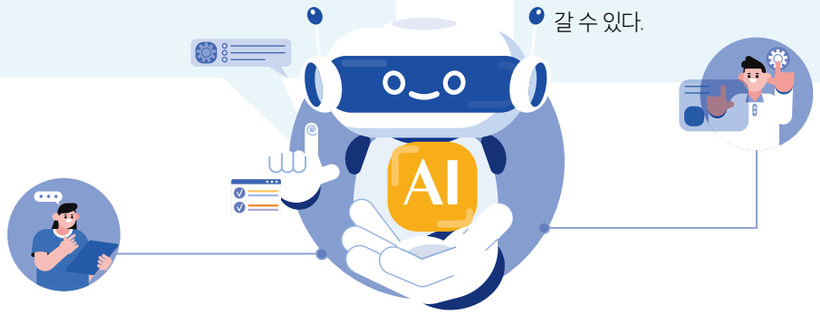
- Case
"다음 달 '신규 전입 직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적용해 볼 만한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아이디어 3가지만 던져줘."라고 질문해 보자. AI가 만들어 준 첫 번째 초안 위에 내 아이디어를 더하고 다듬어 가다 보면 막막했던 기획의 출발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Step 2. 조건을 더해 만드는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는 막연한 질문보다 구체적인 조건에서 나온다. 참석 대상, 예산, 장소, 기간처럼 실제 업무 환경을 반영한 조건을 제시하면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기획 방향을 잡을 수 있다.

- How to 목표와 제약 조건을 함께 제시하며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 Case
"하반기 워크숍을 기획하려고 해. 참석자는 50명이고, 예산은 100만 원 이내야. 실내에서 반나절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5가지 제안해 줘."라고 질문해 보자. 이후 "준비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 줘."처럼 조건을 추가하며 아이디어를 뾰족하게 다듬어 갈 수 있다.



Step 3.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크로스오버 아이디어

공공 행사나 내부 기획이 매년 비슷해지는 이유는 기존 서식과 선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크로스오버' 기법으로 색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자.

- How to 타 분야의 아이디어나 운영 방식을 우리 업무나 행사에 접목하도록 지시한다.

- Case
"'방탈출 게임 요소'를 '청사 보안 및 화재 대피 훈련'에 접목하는 아이디어 3가지를 추천해 줘." 또는 "'팝업스토어 도장 깨기 마케팅'을 활용해 '사법 전시관 홍보 캠페인' 기획안을 짜줘."라고 해보자. 기존의 행사를 참여형 이벤트로 바꾸어 줄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Step 4. 흩어진 아이디어를 하나의 기획안으로 정리하기

AI와 대화하며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몇 개 골랐다면, 이제 해당 내용들을 종합하여 상부 보고용 기획안의 형태로 깔끔히 재구성해 달라고 요청할 차례다.

- How to 채택된 아이디어들을 나열하고, 보고서 양식으로 종합 완성을 지시한다.

- Case
"방금 대화에서 뽑은 '1번 소통 프로그램'과 '4번 체험 이벤트'를 조합해서 '하반기 부서 소통의 날 추진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줘. 양식은 '추진 목적 - 일시 및 장소 - 세부 프로그램 - 기대 효과' 구성을 갖추어 개조식으로 정리해 줘."라고 해보자. 횡설수설 나열되던 아이디어가 보고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된다.



기획이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새롭게 조합하는 과정이다. AI와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던 작은 생각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획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가족들과 함께한 33년

〈법원사람들〉이 500호를 맞이합니다



1994년 첫발을 뗀 〈법원사람들〉이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 통권 500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법원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독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로 500호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채워주세요.

EVENT 1. 500호 축하 메세지

법원사람들 500호 발간을 축하하는
짧은 메세지나 응원의 한마디(50자 이내)

EVENT 2. '숫자 500' 그리고 나의 이야기

법원 생활이나 개인 일상 속 '500'과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

예: 발령 후 500일째 겪은 잊지 못할 사연, 500페이지 분량의 기록과 씨름했던 기억, 우리 과 500m 달리기의 추억 등

EVENT 3. 다시 보고 싶은 기사 & 다시 만나고 싶은 인물

기억에 남는 기사와 그 이유 또는 다시 소식을 듣고 싶은 인물과 그 이유

예: 202X년 X월호에 소개된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2018년 사보 인터뷰에 나왔던 OO법원 선배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등

참여 대상	전국의 모든 〈법원사람들〉 독자	**공모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11월 6일(금)
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 courtpeople@scourt.go.kr	**당첨 발표**	2026년 12월호(500호)

※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내가 〈법원사람들〉 주인공?!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삶의 지혜부터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반려 가족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을 지면에 기록해 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법원사람들〉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참여 마감: 매월 10일
참여 방법: 이메일 접수 courtpeople@scourt.go.kr
※ 원하는 주제의 원고 1편, 관련 사진 5장 이상



법원의 노하우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업무, 일상, 취미, 청소 어떤 분야든 OK!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특별한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나에게는 사소한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꿀팁이 됩니다!

※채택된 원고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우리집 진짜 주인



나만 보기 아까운 우리 집 귀요미를 법원 가족들에게 자랑할 기회! 일상에서 함께 웃고, 위로받고, 추억을 쌓아온 반려동·식물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반려동·식물과의 행복한 순간으로 〈법원사람들〉을 따스하게 채워 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되며, 보내주신 사진은 예쁜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글솜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솔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ISSN 2951-2247